

학술회의 회의자료의 배포와 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Dissemination and Usage of Conference Materials

서지영 (삼성전자 NMS 연구팀)
고영만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Suh Jee-young(Samsung Electronics co.)
Ko Young-man(Sungkunkwan Univ. Dept. of LIS)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에 있어서 회의 자료의 배포와 이용 상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개최된 학술회의가 국제 학술회의인지 국내 학술회의인지에 따라 회의 자료의 배포와 이용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학회 관계자, 교수, 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회의자료는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정보를 학술잡지에 발표하기 위한 예비 단계이지만 가장 최신의 연구개발정보를 담고있기 때문에 해당분야 연구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최신성이 뛰어나고 신속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 중요한 정보의 출처로 선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자료는 비정형적인 유통과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연구자들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의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그 이용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회의자료가 어떻게 배포·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 회의자료의 배포와 이용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특히 개최된 학술회의가 국제 학술회의인지 국내 학술회의인지에 따라 회의자료의 배포와 이용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1.2.1 연구의 가설

(1) 대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가설은 다음과 같다.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는 회의자료의 배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는 회의자료의 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소가설

대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설정한 소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배포

-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는 학술회의 개최공지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는 회의자료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는 회의자료의 배포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이용

-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는 회의자료의 이용차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는 회의자료 이용목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연구대상의 설정과 설문지배포

1) 배포부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통계자료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4년 한해 동안 개최된 학술회의는 총 162건(국내회의-124건, 국제회의-38건)이었다. 이중 국제회의와 국내회의의 건수 격차가 비교적 적은 이·공학분야의 국내회의 20건(개최학회수 20개), 국제회의 20건(개최학회수 20개)이었다.

2) 이용부분

국제회의와 국내회의를 모두 개최하였고, 회원명부

의 입수가 가능하였던 대한전자공학회, 대한전기공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에 소속된 회원들 중 회원60명을 대상으로 (교수 30명, 연구소 연구원 30명)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1.2.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회의자료라는 용어는 초록집, 출판전 배포논문(Pre-print), 회의록(proceedings)을 의미한다.

2. 자료의 분석

2.1 회의자료의 배포

2.1.1 학술회의 개최정보

(1) 학술회의 개최 공지방법

학술회의 개최를 공지하는 방법에는 학회지에 발표한다, 회원에게 서신으로 알린다, 신문 등 공공매체를 이용한다 등이었다. 회원에게 서신으로 알린다는 방법이 두 학술회의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술회의 개최를 공지하는 방법은 거의 모든 학회가 2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하여 쓰고 있었다.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20개의 학술회의모두가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학술회의의 개최를 공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학술회의 경우에는 7개의 학술회의가 '회원에게 서신으로 알린다'는 한가지 방법만을 사용하여 학술회의 개최를 공지하고 있었다.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가 특히 차이점을 보이는 항목은 '신문 등 공공매체를 이용한다'는 항목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국내학술회의는 한 건도 없는 반면에 국제학술회의는 10건으로 21.7%를 차지하고 있었다.

(2) 학술회의 개최 공지시기

학술회의의 공지시기를 비교해보면 국제학술회의 10개 회의(50%), 국내학술회의 9개 회의(45%)로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 모두 '1개월~6개월 사이'에 학술회의의 개최공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학술회의의 경우 7개의 회의(35%)가 한달 전에 개최 공지를 한 반면에 국제학술회의는 한달 전에 학술회의의 개최를 공지하는 경우는 없었고, 국내학술회의의 경우 2건(10%)의 학술회의만이 1년 전에 개최공지를 한 반면에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9건(45%)의 학술회의가 1년전에 개최공지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제학술회의가 국내학술회의보다 좀 더 일찍 학술회의의 개최 공지가 되고 있다.

2.1.2 회의자료의 간행

(1) 회의자료의 종류

먼저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에서 간행된 회의자료 종류의 우선 순위를 비교해보면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첫째, 출판전 배포논문, 둘째, 회의록, 셋째, 초록집의 순서였고, 국내학술회의의 경우는 첫째, 출판전배포논문, 둘째, 초록집, 셋째, 회의록의 순서였다.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모두 '출판전 배포논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었지만,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초록집'보다는 논문의 전문이 실린 '출판전 배포논문'이나 '회의록'이 더 많이 간행되었고, 국내학술회의의 경우는 '초록집'의 비중이 국제학술회의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다.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에서 간행된 회의자료 종류의 병행여부를 비교해보면, 국제학술회의에서 간행된 '초록집'은 2건 모두 나중에 다시 '회의록'으로 간행되었고, 국내학술회의에서 간행된 '초록집' 6건은 2건이 다시 '회의록'으로 간행되고 나머지 4건은 '초록집'으로만 간행되었다. '출판전 배포논문'의 경우 국제학술회의에서는 4건이, 국내학술회의에서는 3건이 나중에 회의록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2) 회의자료의 간행형태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 회의자료 모두 가장 많이 발행되는 형태는 '독립적 간행'이었다. 간행형태에서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가 우선순위에서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지만, 각각의 항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국제학술회의가 국내학술회의에 비해서 '학회나 출판사 등에서 독립적으로 간행'하는 경우가 '학회지에 부분적으로 게재'하거나 '레터형태'로 나오는 경우보다 월등히 높았다.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에서 간행된 회의자료 종류중 회의록의 간행형태를 비교해보면, 회의 당일에 '초록집'이나 '발표전배포논문' 혹은 '레터형태'로 간행된 회의자료가 다시 회의 후에 회의록으로 간행될 때, 국제학술회의는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회나 출판사 등에서 독립적으로 간행'된 반면에 국내학술회의의 경우는 모두 '학회지에 부분적으로 게재'하고 있었다.

(3) 회의자료의 간행시기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 모두 회의 전에 미리 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회의자료의 종류 중에서 출판전 배포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것과 연동되는 것이다. 또한 회의 후에 간행된다고 할지라도 모두 1년 이내에 간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조사된 분야가 최신성을 선호하는 이·공학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학술회의가 국제학술회의에 비해 회의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간행된 초록집을 다시 회의록으로 간행하거나 출판전 배포논문을 회의록으로 다시 간행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1.3 회의자료의 배포방법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판매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국내학술회의에서는 무료배포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판매의 방법에 있어서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 모두 회의자료의 값을 따로 받기보다는, 회의에 참가할 때 참가비를 받고 그 참가비에 회의자료의 값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회의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학술회의의 규모와 가장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회의규모가 커질수록 참가비를 받거나 회의자료의 값을 따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규모가 큰 국제학술회의가 국내학술회의에 비해서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학술회의의 경우 회의 후에 회의록을 간행할 때, 모두 학회지에 부분적으로 실고 있었지만,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독립적으로 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연관하여 판매의 방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1) 부분판매

부분판매는 판매와 무료배포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으로서 방법에 있어서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 모두 회원에게는 무료로 배포하고 비회원에게는 판매를 한다는 방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무료배포시기

무료배포의 시기에서는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가 우선순위에 따라 각 항목이 비중을 차지하는 면에서나 어떤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무료로 배포되는 회의자료의 경우 무료로 배포되는 학회지에 부분적으로 게재되어서 배포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판매

① 판매방법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 모두 회의 당일 현장에서 판매하는 방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국내학술회의의 경우는 회의 당일 판매하는 방법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회의개최 후에 서점 등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회의개최 후에 간행되는 회의록을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회의록 간행 8건 중 판매가 5건) 회의 후에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② 판매기간

국제학술회의가 국내학술회의에 비해서 판매기간이 더 길었다. 국제학술회의의 경우는 기간이 더 길었다. 국제학술회의의 경우는 무기한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60%를 차지한 반면에 국내 학술회의의 경

우는 무기한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없었다. 판매의 기간도 회의의 규모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내학술회의에 비해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배포방법에 있어서 판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국제학술회의가 판매기간도 긴 것으로 보인다.

2.2 회의자료의 이용

2.2.1 회의자료의 이용자층

(1) 참석한 회의수

이들이 94년 한해 동안에 설문에 응한 교수들과 연구소 연구원들 모두 학술회의의 참석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수들은 모두 최소한 2회이상, 연구소 연구원들은 최소 1회이상의 참석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교수들과 연구소 연구원들 모두 2~4회의 참석이 가장 많았고(교수 90.0%, 연구소 연구원 65.4%), 5회이상의 참석은 양쪽 모두 많지 않았다.

(2)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의 참가분포

국내학술회의에서는 교수들의 참가비중이 연구소 연구원보다 높았고,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연구소 연구원들의 비중이 교수보다 높았다. 연구소 연구원들이 교수들에 비해 학술회의 참가횟수가 비교적 적은 데에 비하며, 연구소 연구원들의 국제학술회의에 대한 선호도가 국내학술회의 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수들보다 연구소 연구원들이 최신 정보에 대한 선호도나 필요성이 더 높고, 국내학술회의보다는 국제학술회의가 그런 최신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2.2 학술회의 회의자료 이용목적

(1) 학술회의 참가여부 결정요인

개최되는 학술회의의 참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 모두 '회의의 주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국제학술회의 33.3%, 국내학술회의 48.4%) 그러나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회의의 권위'가 두 번째 비중(30.3%)을 차지한데 비해서 국내학술회의의 경우는 '회원가입여부'가 두 번째 비중(29.0%)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제학술회의의 경우는 첫 번째 비중을 차지한 '회의의 주제'와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한 '회의의 주제'와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한 '회원가입여부'가 비교적 많은 차이점을 보였고, '회의의 권위'항목에서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 차이가 나타났다. 기타에 응답한 11건 모두 '발표 시에 참석한다고 대답했으며, '발표 시에만 참석한다'라고 한 응답도 있었다.

(2) 회의자료의 입수여부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의 두 경우 다 대부분이 참석한 회의의 회의자료를 모두 입수하고 있었

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회의자료를 모두 입수하는 경우

회의자료를 모두 입수하는데 있어서는 회의의 주제나 자신의 관심도 여부보다는 '참가하는 회의의 회의자료는 모두 입수한다'는 것이 회의자료를 모두 입수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이는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제 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 모두 학술회의의 참가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회의의 주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되면서 미리 학술회의의 주제를 알고 참석하기, 둘째, 국내학술회의의 경우 회의자료가 무료로 배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셋째,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그 회의의 권위를 믿고 참석했기 때문에 참가한 학술회의의 회의자료를 모두 입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회의자료를 부분적으로 입수하는 경우

회의자료를 부분적으로 입수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은 회의의 발표내용이나 주제보다는 '가격이 비싸서'였다. 이것은 국제학술회의가 국내학술회의보다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회의의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비나 회의자료의 값이 비싸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는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의 여부보다는 회의의 규모에 따른 참가비나 회의자료의 가격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가격이 비싸서 입수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 회의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도 같이 병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회의자료의 이용도

국제학술회의의 회의자료는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가 5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국내학술회의의 회의자료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가 5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경우는 국제학술회의가 10.5%, 국제학술회의가 13.3%로 별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주 이용한다는 대답한 경우는 비교적 자주 이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이용하지 않는 이유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이용이 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없었고, 각 항목이 서로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학술회의의 경우 '관심이 없는 주제였다'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 모두 기타에서는 '자신의 분과가 아니라서'라는 응답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관심 없는 주제라서'라는 말과 별로 틀리지 않다고 본다.

(4) 회의자료의 이용목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용목적은 살펴보면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연구·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얻기위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국내학술회의의 경우는 '현재 수행중인 연구·프로젝트를 위하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차지하고있는 비중에 의해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의 회의자료의 이용목적의 우선 순위를 비교해보면 국제학술회의가 첫째, 연구·프로젝트를 위해서(연구), 둘째, 연구·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아이디어), 셋째, 연구·프로젝트 수행 전에 중복연구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참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5) 회의자료의 효용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국제학술회의가 94.1%, 국내학술회의가 72.3%로 회의자료를 이용한 후에 회의자료에 대한 효용도는 국제학술회의가 국내학술회의보다 높게 나타났다.

3. 결론

본 연구는 회의자료의 배포와 이용에 관하여 특히 국제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간의 배포와 이용의 차이점을 밝혀냄으로써 회의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시키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학술회의 개최공지방법에서는 개최공지방법의 종류에 차이점을 나타냈다. 국내학술회의의 경우 학회지를 통한 공지와, 회원에게 서신으로 알리는 방법을 사용하고있었고, 국제학술회의는 이 방법외에 신문 등 공공매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2. 회의자료의 종류에서는 간행되는 회의자료 종류의 우선순위에서 차이점이 나타났다.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출판전 배포논문이 가장 많이 간행되었고 그 다음이 회의록과 초록집이었다. 국내학술회의의 경우는 출판전 배포논문, 초록집, 회의록의 순으로 나타났다.
3. 회의자료의 배포방법에서는 배포방법의 우선순위에서 차이점이 나타났다.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판매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었었고, 그 다음이 무료배포, 부분판매의 순이었다. 국내학술회의의 경우는 무료배포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분판매, 판매의 순으로 나타났다.
4. 회의자료 이용자층에서는 연구소 연구원들이 교수들에 비하여 국제학술회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회의자료 이용목적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차이점이 나타났다.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연구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그 다음이 수행중인 연구프로젝트를 위해서였으며, 연구프로젝트 수행 전에 중복 연구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는 마지막 순위로 나타나고 있었다. 국내학술회의의 경우는 수행중인 연구프로젝트를 위해, 연구프로젝트 수행전 중복연구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다.